

VOL. 10

2023 | 봄

충북학누리



영동 초강천과 월류봉

충북학누리

Vol.10 | 2023 봄

CONTENTS

- | | | | | | |
|----|--------------------------------------------------------------------|----|----|------------------------------------------------------------|----|
| 01 | 충북의 문장
조선혁명선언 / 단재 신채호 | 3 | 04 | 충북의 역사 기행
병자호란 주화파
최명길의 또 다른 면
조혁연(충북대학교) | 26 |
| 02 | 한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 공간
출처의 고민과 강학의 현장,
영동 한천정사
김용남(충북대학교 강사) | 7 | 05 | 충북 미술 여행
한국근대미술의 거친 파도 속에서-
김복진과 김주경
김기현(미술칼럼니스트) | 36 |
| 03 | 오늘을 비추는 역사 속 인물
나라는 남녀가 함께 지켜냈다-
충북의 여성독립운동가
유영선(동양일보 주필) | 17 | 06 | 충북학연구소 소식 | 45 |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 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10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3. 04. 14.

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

단재 신채호

五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 것이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제1은 다른 민족의 통치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은 그 위에 '일본'이란 다른 족속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으니, 다른 족속의 지배 밑에 있는 조선은 고유한 조선이 아니다. 고유한 조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족속의 통치를 파괴함이니라.

제2는 특권계급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 민중'은 그 위에 총독이니 무엇이니 하는 강도단의 특권계급이 압박하고 있으니, 특권계급의 압박 밑에 있는 조선민중은 자유로운 조선민중이 아니다. 자유로운 조선 민중을 발견하기 위하여 특권계급을 쳐부숨이니라.

제3은 경제약탈제도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탈제도 밑에 있는 경제는 민중 자기가 생활하기 위하여 조직한 경제가 아니요, 곧 민중을 잡아먹으려는 강도의 살을 찌우기 위하여 조직한 경제다. 민중생활 발전을 위하여 경제 약탈제도를 파괴함이니라.

제4는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자 위에 강자가 있고 천민 위에 귀족이 있어 모든 불평균을 가진 사회는 서로 약탈하며 빼앗고, 서로 질투하며 원수로 대하는 사회가 되어 처음에는 소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의 민중을 해치다가 끝내는 또 소수끼리 서로 해쳐서 민중 전체의 복이 마침내 숫자상의 영(0)이 되고 말 뿐이니, 민중 전체의 행복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함이니라.

제5는 노예 문화사상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문화사상의 종교·윤리·문학·미술·풍속·습관 그 모든 것이 강자가 제조하여 강자를 옹호하던 것이 아니더냐? 일반 민중을 노예로 만들던 마취제가 아니더냐? 소수 계급은 강자가 되고 다수 민중은 도리어 약자가 되어 불의의 압제에 반항치 못함은 노예 문화사상의 속박을 받은 까닭이니, 만일 민중의 문화를 제창하여 그 속박의 쇠사슬을 끊지 아니하면 일반 민중은 권리사상이 박약하며 자유 향상의 흥미가 모자라게 되어 노예의 운명 속에서 윤회할 뿐이라. 그러므로 민중의 문화를 외치기 위하여 노예 문화사상을 파괴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고유한 조선의’, ‘자유로운 조선 민중의’, ‘민중 경제의’, ‘민중 사회의’, ‘민중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민족 통치의’, ‘약탈제도의’, ‘사회 불평균의’, ‘노예 문화사상의’ 현상을 타파함이라. 그런 즉 파괴의 정신이 곧 건설의 주장이라, 나아가면 파괴의 ‘칼’이 되고, 들어오면 건설의 ‘깃발’ 될지니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하면 5백 년이 지나도 혁명은 꿈도 꾸어 보지 못할 지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민중적 파괴 앞에서는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 민중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새 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 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 ‘외나무다리 위’에 선 줄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하나 되어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營(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기지 않는
폭력—암살·파괴·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모든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가 사회를 빼앗지 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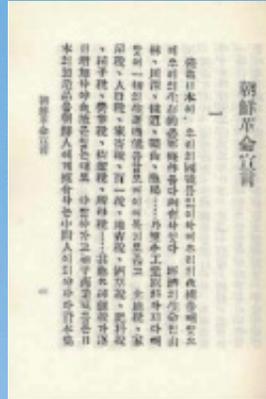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4256년 1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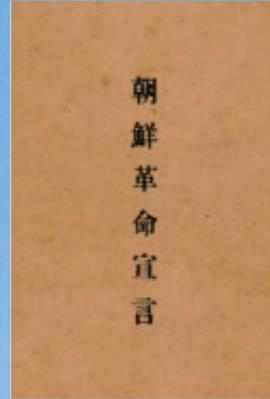
義烈團



▲ 위순감옥의 단재



▲ 「조선혁명선언」 원본 이미지



*이미지 출처: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편집자 주**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장 김원봉의 청탁으로 신채호가 지어 1923년 1월에 ‘의열단(義熱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글은 폭력(암살, 파괴, 폭동)을 사용하여 일제를 쳐부수고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자는 민중 직접 혁명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근대 선언문 가운데 가장 혁명성과 급진성이 강하다. 「의열단선언」으로도 불리는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의 또 다른 문장인 「조선총독부 관공리에게」와 함께 의열단의 거사 장소에 뿌려졌다. 이처럼 「조선혁명선언」은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투사들의 의롭고 맹렬한 정신을 담고 있으며, 빈틈없는 논리와 장중한 느낌의 문체로 작가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문장으로 평가된다.

2023년은 「조선혁명선언」이 발표된 지 딱 100년이 된다. 이 글은 전체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다섯 번째 부분만 실었다. 원문을 바탕으로, 원문의 내용과 느낌을 지키면서 지금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고쳤다.

출처의 고민과 강학의 현장, 영동 한천정사(寒泉精舍)

김용남(충북대학교 강사)

의리가 맞지 않으면 물러난다 월류봉이 자리한 영동 황간면 원촌리에 있는 한천정사(寒泉精舍)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10년 동안 머물며 강학을 했던 곳이다. 1999년 충청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한천정사는, 1717년(숙종 43) 영동의 선비들이 송시열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한천서원(寒泉書院)이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자 1910년에 지역의 선비들이 다시 건립한 것이다.



▲ 한천정사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37년 1월, 인조가 청나라와의 강화를 결정하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자 조선의 뜻 있는 선비들은 은거하여 스스로 학덕을 기르고 후학을 양성하여 후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송시열 또한 문명의 나라 조선이 청에 굴복하는 치욕을 겪고 이어 세자와 대군이 청으로 떠나자, 도성에서 나와 속리산으로 들어가 모친 곽 부인(郭夫人)을 뵈고, 보은 노곡(老谷)에 있는 둘째 형이 머무는 곳으로 모시고 돌아갔다.

송시열은 1638년 별제로 승진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1월, 산 높고 물 깊은 황간(黃澗) 냉천(冷泉)의 산골짜기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그의 나이 32세 때이다. 이듬해 9월 용담현령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국가의 치욕을 절통하게 생각하여 오래도록 은거하려는 뜻을 가졌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조정에 나가 봐야 청나라의 꼭두각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차라리 산수가 아름다운 이곳 냉천에서 학문에 전심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선비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은 것이다. 출처(出處)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처럼 당당하고 분명하였다.

**한천정사에서
강학하다**

32세에 냉천에 은거한 송시열은 42세(1648년)에 진잠(鎭岑)의 성전(星田)으로 이거하기까지 10년 동안 이곳 황간에 머물렀다. 가끔 곽 부인 문안차 보은과 옥천에 다녀왔을 뿐, 일절 시사(時事)를 말하지 않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강학에 진력하였다. 당시 송시열이 강학을 했던 곳은 한천정사의 서쪽으로, 현재 그곳에 <우암송선생유허비(尤菴宋先生遺墟碑)>가 있다. 일찍이 우암이 이곳 정사에서 강학한 것을 기념하여 후손과 유림들이 1875년(고종 12)에 건립한 것이다.



▲ 우암송선생유허비

한천정사의 전신인 냉천정사(冷泉精舍)를 지은 이는 일석(一石) 박유동(朴惟棟, 1604~1688)이다. 안정(安定) 박사삼(朴事三, 1564~1644)의 아들이자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생질이다. 황간의 안정촌(安定村)에서 살다가 물한산(物閑山) 아래 옥계(玉溪)와 석교(石橋)의 활계(活溪) 등으로 옮겨 살았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송시열 송준길과 친교가 있었으며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을 지냈다.

선생이 그날 이곳에 머물며	先生當日此留連
버들 언덕 이끼 낀 돌에 몇 번이나 올랐던가.	柳岸苔磯幾踰躡
산은 광려와 같이 푸르고	山似匡廬長積翠
물은 이락처럼 맑았네.	水如伊洛盡清漣
절벽처럼 우뚝 솟은 기암 떠올리며	追思氣像巍壁緬
고요하고 깊고 묵직한 뜻 생각한다.	想襟懷俯靜淵默
이로부터 노부가 가르침 더 청하기 어려웠으니	自此老夫難請益
높은 자취 찾고 싶어 초가를 짓네.	爲尋高躅結茅椽



▲ "한천정사"편액



▲ 한천정사

제목은 <냉천에 초가를 지으며 송우재를 생각하다(結第冷泉, 憶宋尤齋)>이다. 박유동의 문집 『일석유고(一石遺稿)』에 전한다. 송시열이 냉천에 은거할 뜻을 정하자 평소 가까이 교류했던 사우(師友) 박유동은 서둘러 그가 거처할 서재를 마련하였다. 바로 냉천정사이다. 위 시는 박유동이 정사를 지을 때, 이에 앞서 송시열과 함께 냉천을 답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읊은 것이다. 세 번째 구의 ‘광려(匡廬)’는 중국의 여산(廬山)을 가리킨다. 주(周)나라 때 광유(匡裕) 형제 일곱이 이곳에 집을 짓고 은거하였다. 네 번째 구의 ‘이락(伊洛)’은 이수(伊水)와 낙수(洛水)로, 여기에서는 정자(程子)와 그 학통을 이어받은 주자(朱子) 등의 유학자를 가리킨다. ‘광려와 같이 푸르고 이락처럼 맑았다’고 하였으니, 우암이 잠깐 머물기만 해도 황간의 산수는 이처럼 달라보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의 만남은 박유동으로 하여금 이곳 황간에 유학의 도를 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신 또한 송시열의 학덕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활계거사의 두 눈이 푸르니
 젊은 나이에 문장으로 드날렸네.
 늘그막에 산중으로 몸을 감추어
 경서와 사서 공부 힘쓰고 있네.

活溪居士雙眸碧
 少日詞場擅姓名
 老去收身巖壑裏
 却於經史有工程

송시열이 지은 것으로, 제목은 <박시보에게 화답하다(和朴時甫)>이다. 첫째 구의 활계거사(活溪居士)는 당시 활계에 살던 박유동을 말한다. 젊었을 때부터 문재(文才)가 뛰어나 글재주로 문명을 떨치던 그가 늘그막에는 산중에 묻혀 경사 공부에 매진한다는 것. 박유동은 시 246수와 <황계지서(黃溪誌序)> 등 문 3편을 남겼다. 특히 시 중에는 송시열에게 보낸 것이 많고, <냉천정사에서 비오는 날에(冷泉精舍雨中)>·<냉천에서 우연히 읊다(冷泉偶吟)>·<냉천에서 회포를 쓰다(冷泉述懷)> 등 냉천정사와 관련된 시가 여러 편 있다.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에 보이는 황간과 영동의 문인들은 송시열이 이곳에서 강학할 때 참여했던 이들이다. 박유동의 아들 박함장(朴含章)과 안정처사(安定處士) 박사삼의 종손(從孫) 박회장(朴晦章)도 포함되어 있다. 박회장은 1677년(숙종3) 송시열을 사면할 것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려 같은 해 12월에 벽동군(碧潼郡)으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박사삼의 외손 이지(李枝)와 송시열이 효우지사(孝友之士)로 일컬었던 청절당(淸節堂) 박승희(朴承禧)도 이때 그에게 배웠던 황간의 제자이다.

한편 청주문의 출신 송봉(松峯) 오익승(吳益升, 1620~1679)이 황간의 송시열을 찾아 수업하였다. 사실 오익승은 19세인 1638년 2월부터 모친의 명에 따라 외가 쪽 어른인 송준길에게 배웠다. 그때 그는 공주 사한리(沙寒里) 우락재(憂樂齋)에 머물렀다. 그러던중 송준길이 황계(黃溪)에 있는 큰 스승을 종유(從遊)할 것을 권하자, 21세인 1640년 봄부터 황간의 송시열을 찾아 사제의 연을 맺었다. 혼인 후 1643년 1월부터 옥천의 노성산 아래 월협(月峽)으로 가서 살았는데, 1647년 봄 다시 고향 응봉(鷹峯)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4년을 옥천에서 살면서 황간을 오갔다.

**도천과 송계에서
시로 화답하다**

1638년 11월, 이제 막 황간에 자리를 잡은 송시열은, “며칠 동안 조용히 시내와 산 사이에 있노라니 형이 몹시 그리워 침음(沈吟)하다가 저절로 시구를 이루었으나 어찌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시를 지었으므로 감히 숨길 수 없어 이렇게 적어 보내니 평론해 주고 또 화답하여 보내 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세 편의 시를 송준길에게 보냈다. 그 중 2수이다.

회천 사람이 도천 사람 되었으니	懷川人作道川人
송계를 바라보며 가까이하지 못하네.	相望松溪不可親
골짜기와 풍운은 정취가 다르지만	洞壑風雲雖異趣
마음을 각성한 그 뜻은 같으리라.	喚醒心處意思均

조용히 붉은 벼랑 대하다 날이 저무니	淨對丹崖到日昏
시원한 물소리 외딴 마을을 감도네.	寒聲淅瀝繞孤村
무단히 송계의 벗 생각이 나니	無端忽憶松溪友
공경 온문을 고요한 가운데 힘쓰리라.	恭敬溫文靜裏敦

제목은 <시를 지어 송계에 계신 도형 명보 동춘에게 드리다(吟呈松溪道兄明甫同春)>이다. 첫 번째 시 첫째 구의 ‘도천인(道川人)’은 송시열이 자신을 말한 것이다. 도천(道川)은 황간의 도대천(道臺川)을 가리키는데, 당시 우암이 살고 있던 곳으로 냉천의 상류이다. 둘째 구의 ‘송계(松溪)’는 송준길을 가리킨다. 당시 송준길이 안의(安義)에 있는 송계암(松溪菴)에서 살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어 도천(황간)과 송계(안의)의 골짜기도 그리고 그 골짜기에 이는 바람과 구름의 정취도 사뭇 다르지만 서로 마음을 각성한 그 뜻은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마음을 각성한 그 뜻’이란 무엇을 말할인가. 『논어』 「태백(泰伯)」에, “천하에 가 있으면 나가고 도가 없으면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라고 하였다.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수양과 후학 양성을 통해 선비의 본분을 지켜나가려 함이다. 당시 김장생의 고제(高弟) 송시열·송준길·이유태는 각각 황간 냉천, 안음 원학동, 덕유산 산미촌으로 은거하였다. 두 번째 시에서는, 송시열이 머무는 냉천의 풍광을 그리며 송계의 벗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담았다. 네 번째 구의 ‘공경온문(恭敬溫文)’은, 평소 공손히 섬기고 온화하며 문아(文雅)한 송준길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송준길 또한 그대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 때면 더러 시를 지었다며 세 편의 시를 보내왔다. 그 중 1수이다.

세상 명리에 물보다 맑고	世味淡於水
마음의 근원이 참선하듯 고요하니	心源靜似禪
지팡이 짚고 홀로 문을 나서면	扶筇獨出戶
새로 뜬 달 아름다운 그대 비추리.	新月照嬋妍

제목은 <우연히 읊어 도천에게 보내어 화답을 청하다(偶吟寄道川, 道案求和)>이다. 송계에 있는 송준길이 황계에 있는 송시열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제목에서 말한 도천(道川)은 물론 송시열을 가리킨다. 그는 송시열이 누구보다도 세상 명리(名利)에 맑고 마음의 근원 또한 고요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에 대한 그리움은 마치 눈앞에서 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밤에 홀로 문을 나서는 벗과 어우러진 월류봉의 맑은 달빛을 절묘하게 그려내었다.

영동의 선비들 한천서원을 세우다

송시열 사후 문중에서는 옛 거처에서 멀지 않은 냉천 상류에 사현사(四賢祠)를 지어 그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곳 냉천은 송시열이 젊은 시절 거처하던 곳으로 늘 학업에 전념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낸 곳인데도 사당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던 이유이다. 더욱이 사현사는 생전에 송시열이 건립을 주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황간에 있는 우재 사우에 위패를 봉안한 제문(黃澗 尤齋祠宇奉安祭文)>에서, ‘세도(世道)를 자임함이 용감하였고 의리를 지키는 게 확고하였다(任道之勇, 秉義之確)’고 하였다.

이후 영동의 선비들은 우암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717년(숙종 43)에 서원을 세웠고, 1725년(영조 1) ‘한천(寒泉)’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이후 한천서원은 우암을 제사하고 후학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참배객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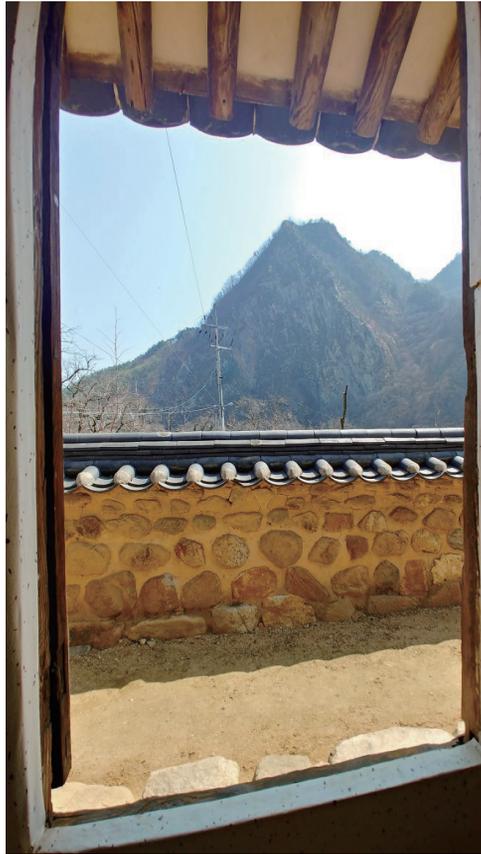
서원에 사람 없고 문은 굳게 잠겼는데	院宇無人鎖不開
뜰 가득 봄풀만 홀로徘徊하네.	滿庭春草獨徘徊
초상을 우러러보지 못함을 어찌 한탄할까	未瞻七分何須嘆
시냇가 푸른 바위가 만 길이나 높구나.	溪上蒼巖萬丈巍

김상진(金相進, 1736~1811)이 1766년에 지은 것으로, 제목은 <늦은 봄 하순에 한천서원에서 노는데 원직이 마침 출타하여 참배를 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절구 한 수를 읊어 동행에게 보이다(暮春下浣, 游寒泉書院, 院直適出, 未得瞻拜, 遂吟一絕, 以示同行)>이다. 탁계(濯溪) 김상진은 보은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는 홍명원(洪命元)에게 수학하다가 성장하여서는 김원행(金元行)·송명흠(宋明欽)을 사사하였다. 서원을 방문했는데 마침 원직이 출타하여 우암의 초상(肖像)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탄할 일은 아닌 것이, 냇가에 우뚝 서 있는 푸른 바위가 선생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셋째 구의 ‘칠분(七分)’은 초상을 말한다. 그림으로는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7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한천의 고사를 누구에게 물을까	寒泉古事憑誰問
머리 돌리니 물 흐르고 구름 또한 쓸쓸하네.	回首水流雲又淒
오히려 사우 앞에 만 길 석벽이 있어	猶有祠前萬仞壁
오래도록 사도의 기운이 그와 같네.	千秋道氣與之齊



▲ 산양벽과 월류봉



▲ 한천정사에서 바라본 산양벽과 월류봉

<한천서원에 참배하고 삼가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謁寒泉書院, 敬次板上韻)>이다. 송시열의 9대손 송병순(宋秉珣, 1839~1912)의 작품이다. 첫째 구의 ‘한천(寒泉)’은 한천정사를 말한다. 주자가 모친의 장사를 치른 뒤에 무덤 가까이 정사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한천정사였다. 주자는 이곳에 거주하며 학문에 침잠하였는데, 한천의 고사’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송시열 또한 이곳 냉천(한천)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강학을 하였기에, 그 옛날 주자가 한천에서 했던 일과 송시열의 모습을 함께 떠올린 것이다. 다만 스승들은 가고 없지만 사우 앞에 우뚝한 만길석벽만이 오래도록 유가의 법도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많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머물던 그 옛날 한천서원은 사라졌지만, 한천정사가 있어 그나마 이곳을 찾는 이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준다.

황간 냉천의 아름다운 산수, 한천팔경

황간 냉천은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리하여 일찍이 이 일대의 뛰어난 경치 여덟 곳으로, 월류봉(月留峰)·냉천정(冷泉亭)·사군봉(使君峰)·화헌악(花獻嶽)·법존암(法尊巖)·산양벽(山羊壁)·청학굴(靑鶴窟)·용연대(龍淵臺)가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 황간현(黃澗縣) 불우(佛宇)조에는 ‘심묘사(深妙寺)의 팔경(八景)’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제영(題詠)조에 고려 이지명(李知命, 1127~1191)의 시가 있다. “여러 봉우리 구름 받쳐 솟아있고, 맑은 냇물 돌에 부딪쳐 흐르네(列嶂撐雲聳, 淸川激石流)”이다. 월류봉을 읊은 것으로 보인다. 이지명은 사부(詞賦)를 잘 지었고 초서와 예서에도 뛰어났다. 명종 즉위 후 간관에 발탁되었고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올랐다. 그렇다면 ‘심묘사팔경’은 누가 언제 설정한 것일까. 고려 명종 때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 시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래 이인로(李仁老)·이규보(李奎報)·진화(陳渾) 등 당시 문인 식인에 의해 소상팔경을 소재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팔경문화(八景文化)가 유행하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치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팔경시가 등장한다. 고려후기로 오면 더욱 유행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팔경시가 창작되면서 한국의 팔경시는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한국 팔경시의 전개과정으로 볼 때, 아마도 심묘사팔경은 고려 명종 이후 심묘사와 인연이 있는 시인 묵객 중에 팔경문화에 익숙한 누군가가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심묘사팔경은 ‘냉천’이라는 지역 이름을 딴 ‘냉천팔경(冷泉八景)’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영남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인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1620~1674)가 남긴 「냉천팔영(冷泉八詠)」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바뀐 것일까. 일단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530년 이후인 것만은 확실하다. 홍여하는 홍귀달(洪貴達)의 5대손으로, 병마사 권우(權楸)의 일로 1660년(현종 1) 1월 황간으로 유배 되어 몇 년을 이곳에서 지냈다. 그가 남긴 「냉천팔영(冷泉八詠)」 8수는 이때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1660년 이전에 ‘심묘사팔경’에서 ‘냉천팔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아마도 냉천에 냉천정사가 생기고 송시열이 그곳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냉천팔경’으로 불린 듯하다. 현재 한천정사에 주련(柱聯)처럼 걸린 팔경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후 1717년 한천서원이 건립되면서 ‘냉천팔경’에서 ‘한천팔경(寒泉八景)’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 저문 빈 강에 저녁 안개 자욱한데	日落江空暮靄橫
찬 달이 고요한 가운데 떠올라 더욱 어여쁘네.	更憐寒月靜中生
삼천 길의 옥처럼 우뚝 선 동쪽 봉우리	東岑玉立三千仞
맑은 달빛 머물러 밤마다 밝구나.	留得清輝夜夜明



▲ 초강천과 월류봉

홍여하가 지은 「냉천팔영(冷泉八詠)」 8수 중 <월류봉(月留峰)>이다. 월류봉은 ‘달이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이다. 이곳은 깎아지른 바위산 아래로 초강천이 흐르고, 그 위에 그림처럼 월류정(月留亭)이 자리하고 있어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다. 해 저문 초강천에 안개가 자욱한데 그 고요 속을 뚫고 떠오른 달. 그 모습 어여빠 시인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달빛에 매료된 것은 시인뿐만은 아닌가보다. 푸른 옥처럼 우뚝 솟은 동쪽 봉우리마저 맑은 달빛을 잡아놓아 밤마다 밝다고 한 것을 보니. 이처럼 우뚝 솟은 월류봉 봉우리에 밝고 둥그런 달이 걸려있는 정경은 참으로 아름다워 한천 팔경 중에서도 제1경으로 꼽힌다.

금화산에서 양 치던 일 몇 천 년 되었던가	金華羊叱幾千齡
괴석이 부름에 응하여 양으로 변했다지.	醜石應須變幻成
홀연 산 밖을 지나는 목동을 보고서도	忽見牧童山外過
세상에 다시금 초평을 아는 이 없구나.	世人無復識初平

<산양벽(山羊壁)>이다. 산양벽은 월류봉의 첫째 봉우리와 둘째 봉우리이다. 병풍 같이 깎아지른 괴이한 모양의 바위벽을 보고 시인은 황초평(黃初平)을 떠올린다. 아무래도 바위벽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고, 무엇보다 ‘산양(山羊)’이라는 이름 때문 이리라. 단계(丹溪) 사람 황초평은 15세에 양을 치다가 도사를 따라 금화산(金華山) 석실로 가서 수도하였다. 그 후 40년 만에 형 초기(初起)가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가 만났는데, 양은 보이지 않고 흰 돌들만 있었다. 그런데 초평이 “양들은 일어나라.”라고 소리치자 흰 돌들이 모두 수만 마리의 양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신선전(神仙傳)』 <황초평(黃初平)>에 있는 이야기다. 산양벽의 괴석을 그 옛날 황초평의 양으로 치환하여, 아직까지도 월류봉 산자락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재미있는 발상이다.

나라는 남녀가 함께 지켜냈다 - 충북의 여성독립운동가 -

유영선(동양일보 주필)

3월은 생명의 달이다. 만물이 약동하고 새로운 생명이 생기며, 동면하던 동물이 깨어나고, 태양이 남에서 북으로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춘분점을 지나간다. 땅에선 새싹이 돋고 겨울을 지난 빈 나뭇가지에선 새우미가 돋는다.

그러나 3월은 무엇보다 피가 뜨거워지는 달이다. 가슴 속 저 밑바닥에서 울컥울컥 올라 오는 뜨거운 감정. 강탈당한 나라를 찾기 위해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펄펄 끓는 피로 투쟁을 하던 선열들의 정신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나는 달이다.



▲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안의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3·1운동 100주년을 맞던 지난 2019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27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안에는 특별한 전시실이 문을 열었다. 충북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실이었다. 이 전시실은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로는 전국 최초라서 관심을 모았다. 이곳에는 충북에서 태어나거나 충북과 연고가 있는 분 중 애족장 이상의 훈장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10명의 흉상과 활동상을 담은 기록물, 그리고 흉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신명을 다했던 여성독립운동가 6명의 사진과 업적이 기록돼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온 생애를 불사른 그녀들의 불꽃같은 삶이 가슴 저리게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보는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다. 어떤 이들은 “충북에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많았어?”라고 놀라고, 어떤 이들은 “그 많은 여성독립운동가 중에서 겨우 이렇게밖에 못 찾았어?”라고 실망한다.

“나는 여성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심옥주 전 부산대 교수가 펴낸 책 제목이다. 함께 조국을 지켜내고 버텼지만 조명 받지 못하고 역사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나라를 되찾은 지 78년이 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아직도 여성독립운동가를 물으면 유관순 열사만 기억한다. 함께 투쟁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들은 왜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여성들은 왜 기록에서 빠져있을까? 책 제목에 “나는 여성이고”를 강조한 의도가 공감되는 현실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680만 명이었다. 그 가운데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이 독립 시위에 참여한 것은 세계혁명사에서 보기도 드문 현상이다. 이 시위로 피검된 사람들 중에는 여교사와 여학생이 218명이나 되었다. 1919년 당시 여자들의 취학률이 남자들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비율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여성독립운동가로 ‘유관순’ 한 사람만 기억할까. 그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30여 명의 독립운동가 중 여성은 유관순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느끼는 일에 성별이 다르지 않듯, 나라를 되찾고 싶은 열망 역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남성중심 사회에서 우리 사회는 여성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일에 소홀했다. 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수는 모두 17,664명(2022.11.17.현재), 그 가운데 여성은 607명(2022.11.17.현재)으로 3.4%에 불과하다.

3·1운동은 여성들이 처음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봉기한 혁명이다. 국채보상운동이나 의병투쟁 등에 소수의 여성이 참여한 적은 있으나 자주적으로, 집단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역사현장에 참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들의 활동은 대외적으로 소문이 났다. 인도의 초대 수상이 된 네루가 항영(抗英)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뒤, 딸에게 “너도 조선 소녀들을 본받으라”고 편지를 쓸 정도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일에 소홀했다.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90년대 이전에는 남성위주의 보훈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독립운동가 공적을 따질 때 주로 기록이나 직책에 따라 공훈이 가려지는데 여성은 앞장서서 투쟁하기보다는 독립운동가의 부인이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조력자’ 정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성 차이를 넘어서 똑같이 나섰다. 누구의 어머니자 아내로서가 아니라, 남성독립운동가의 조력자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자로서 자발적으로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것이다. 여성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남성들과 똑같이 총칼을 들고 싸운 여성들도 있지만, 남편이 싸우는 곳곳에서 손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었던 부인과 딸, 며느리 등이 있었다. 또 독립운동 조직 내에서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군자금을 모으거나, 비밀통신 연락을 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아니 중국으로 떠난 독립운동가 남편 대신 고향에 남아서 가족을 책임지고 돌본 ‘가장’들도 있었다. 포상을 주거나 공적을 따질 때 주로 기록이나 직책에 따라 공훈이 가려지다보니, 여성이 한 일들은 보조적인 것으로 취급돼 독립운동가 서열에는 끼지 못했지만, 어찌 보면 나라를 강탈당한 뒤 어려운 살림 속에서 자식을 기르며 가정을 지켜온 여성들 모두가 독립운동가일지 모른다.

독립운동 조직 내에서 밥을 하거나, 군자금을 모으거나, 비밀통신을 연락하거나 하는 여성의 역할 자체가 보조적인 것으로 취급돼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따라서 현재의 독립운동의 의미나 평가 기준은 남성의 시각에서 구성된 것이고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기록일 수밖에 없다.

1919년 2월 여성들이 발표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3·1 독립선언서’와 달라서 신선하다.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의 문건과, 일본 외무성 자료에 남아있고, 신한민보에도 기사화됐던 것으로 김인종 김숙경 김오경 고순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등 8명의 여성이 연서를 했는데, 이중에서 김숙경만이 독립운동가 황병길의 처로 추정되고 나머지 여성들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나 배포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선언서는 순 한글로 작성을 해서 지식층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등의 가치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이런 자료가 말해주듯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다행히 충북도에서 충북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찾기 시작했다. 충북의 독립운동161명 가운데 어렵게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정리했다. 그분들의 뜨거운 이름을 불러본다.

대한제국말기와 일제강점 초기, 제천을 중심으로 의병투쟁을 해온 유인석 의사의 며느리로 의병 운동에 참여, 8편의 의병가를 직접 만들 여성과 청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워주었으며, 만주로 망명한 뒤에는 조선독립단 활동 항일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동에 앞장서고, 시아버지 남편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한 여성 최초 의병장 윤희순(1860. 06. 25.~1935. 08. 01).



충주시 소태면 출생으로 동학군인 남편이 전사하자 개성에 정착, 개성여자성경학원 기숙사사감을 지내던 중, 1919년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개성만세운동의 불씨를 만들고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자 감옥 안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만세운동의 투사이자 여성의 권익신장과 아동복지활동에 헌신한 애국계몽운동가 어윤희(1880. 06. 20.~1961. 11. 18).



북경의연경대학에서의학공부를한간호부로31만세운동이일어나자많은 부상자들을치료하던 과정에서 간호사들을 모아 ‘간우회’를 조직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나석주 폭탄투척 사건의 길안내와 군자금 모금요원 중개 등 국내에서 가능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단재 선생의 옥바라지를 감내한, 단재 신채호 부인 박자혜(1895. 12. 11.~1943. 10. 16).



남만주 독립전쟁사에서 ‘군인계삼천’으로 불리던 남편 신팔균(진천이 분향)과 결혼, 기밀문서 전달, 군자금 모금, 독립군 후원 등 비밀 항일연락 등을 도맡았고 중국으로 옮겨 중국 동북지역 무장단체와도 긴밀하게 연락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남편의 전사소식을 들은 후 자결해 순국한 이수명(1894. 02. 15.~1924. 11. 02).



청주 옥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정순만의 며느리이자 독립운동가 정양필 부인. 이화학당 1회 졸업생으로 독립운동의 길로 뛰어들어 1919년 항일애국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 상하이 회장이자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로 활동하다가 독립운동가 정양필과 만나 미주 지역에서 독립자금 모집의 주역으로 활동한 **이화숙**(1893~1978).



증평출신 독립운동가 연병환의 장녀로, 남편 엄항섭과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 결성에 참여, 상해여자청년동맹대표로 중국내 여성독립운동 연합전선을 주도하고, 한국광복직선청년 공작대를 결성해 선전과 홍보활동에 주력했으며, 남편이 임시정부 임무를 맡는 동안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한 실질적 가장이자 항일투쟁전선에서 싸운 독립운동가 **연미당** (본명 연충효; 1908. 07. 15.~1981. 01. 01).



청주 가덕면 출신 독립운동가 신건식의 부인으로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안살림과 이동녕, 박찬익 등 독립운동가의 뒷바라지에 힘썼고 ‘남목청사건’으로 총상을 당한 김구 선생을 간호하여 소생시켰으며, 한국혁명여성동맹과 한국독립당에 참가하여 활동, 남편과 자신은 물론 딸 신순호, 사위 박영준, 형 신규식, 조카 신형오, 사돈 박찬익 등 독립운동의 명문가족을 뒷바라지한 오건해(1894. 02. 29.~1963. 12. 25.)



신건식 오건해의 외동딸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한중 연대에 의한 항일 운동에 나섰으며, 한국광복군 창군 때 여군으로 입대,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여권 신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독립운동가 박찬익의 아들인 독립운동가 박영준과 결혼, 독립운동 혈통을 이은 여전사 신순호(1922. 01. 22.~2009. 07. 03)



음성출신 독립운동가 장현근과 결혼, 상하이로 망명후 ‘애국청년단’활동으로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치렀고, 조선의용대에 참여 김구의 비서로 근무, 한국광복군이 창군되자 여자 광복군 1호로 입대해 전투정보공작 활동을 펼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에 헌신한 신정숙(1910. 05. 12.~1997. 07. 08.)



영동 심천면의 빈농 출신으로 군제제사공장의 여공으로 근무하며 동료 여성노동자에게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항일의식 고취하다가 체포, 옥고를 치른 박재복(1918. 01. 28.~1998. 07. 18.).



그리고 흥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임시정부의 숨은 조력자 이국영, 독립운동가 신규식의 딸로 독립운동의 대를 이은 신창희, 임시정부를 이끈 김수현, 죽음을 무릅쓰고 만세를 부른 민인숙, 태극기를 제작해 시위를 준비한 민금봉, 고난을 각오하고 일제를 비판한 홍금자 등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신명을 다했던 6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



▲ 이국영



▲ 신창희



▲ 김수현



▲ 민금봉

대한민국 주춧돌을 놓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이들뿐이라면, 이름과 공적이 드러난 대표적인 충북 여성들이 이들인 것이다. 이들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며, 이 분들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목숨을 바쳤을지,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얼굴들을 행간 속에서 찾아보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렇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남녀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함께 지켜낸 것이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독립시위에 참여한 세계혁명사의 초유의 일인 3·1혁명. 그 가운데 당당한 한 몫을 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업적과 가치를 찾는 일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할 것이다.

병자호란 주화파

최명길(崔鳴吉)의 또 다른 면

조혁연(충북대학교)

I. 들어가며

조선 후기 문신인 지천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은 말년에 진천에 거주했고, 지금은 청주 북이면 대울리에서 영면하고 있는 충북의 인물이다. 그는 인조반정 1등공신이면서 청나라에 붙들려가 옥살이를 하는 등 굴곡 많은 생을 살았다.

역사가들은 최명길을 병자호란의 ‘고독한 주화론자’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는 남한산성에 주전론자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외롭게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 결과적으로 조선의 종묘사직과 백성의 안위를 지켜냈다. 그의 주화론은 즉흥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평소의 신념이 바탕이 된 것일까.

최명길은 이것 외에도 서얼차별을 반대하고 ‘파계귀종’(罷繼歸宗)을 뿌리치는 등 ‘불합리’를 거부했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충북학연구소의 지면을 빌려 최명길의 알려지지 않은 면을 원문 위주로 살펴본다.

최근에 충북 정가는 최명길을 정치적으로 소환,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이번 글은 학문적으로 접근한 글로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최명길의 구체적인 생애는 연보로 대신한다.

II. 경세가 최명길

1. 서얼과 서북인 차별에 대한 인식

최명길(1586~1647) 연보		
서기	연령	기사
1586	1	8월 25일, 태어나다
1605	20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다. 4월 문과에 합격하다
1614	29	1월 인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해 삭탈관직, 문외출송되다
1616	31	모친상을 당하다
1619	34	부친상을 당하다
1623	38	반정에 참여해 정사공신 1등에 녹훈되고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지다
1624	39	이괄(李适)의 난에 총독부사가 되어 공을 세우다
1626	41	1월 입후(立後)의 잘못을 논하다
1627	42	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화의를 주장, 적이 물러난 뒤 탄핵을 받고 추고당하다
1628	43	경기 관찰사가 되다
1635	50	4월 호조 판서가 되다
1638	53	청 나라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고 직접 심양에 가서 담판하고 돌아오다
1642	57	명(明)과의 연락을 도모한 일이 청에 의해 포착되어 임경업과 함께 직접 봉성으로 가다 심양의 북관에 억류되다
1645	60	2월 세자·대군과 함께 돌아오다. 청주(淸州)로 돌아와 진천장(鎭川庄)에 머물다
1646	61	강빈(姜嬪)의 옥사에 사사를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1647	62	5월 17일 졸하다. 8월 청주 대울리 선영에 장사 지내다
1680	-	손자 최석정(崔錫鼎)이 시호를 청하기 위하여 행장을 짓다
1681	-	12월 문충(文忠)으로 시호를 내리다
1702	-	박세당이 신도비명을 짓다

양반 남자와 양인 여자 사이에 낳은 자식은 ‘서자’, 양반 남자와 천민 여자 사이에 생긴 자식은 ‘얼자’라고 부른다. 조선의 서얼들은 태종대부터 법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조선의 양반들은 성적 소비는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잠식을 우려, 그들을 양반 범주에 끼워주지 않았다. 이때의 기득권은 ‘파이’를 의미한다. 둘이 먹던 떡을 5~6명이 먹으면 그만큼 파이가 적게 돌아간다. 인조 11년(1633) 이조가 상소를 올렸고, 당시 이조참판은 최명길이었다. 이조는

지금 9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 강론하여 정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말았으니 몹시 미안한 일입니다. 삼가 보건대, 서얼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으레 제수하는 관직은 봉상시나 교서관의 3~4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데가 없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목 내에서 이른바 ‘요직은 허락한다.’는 것은 바로 호조·형조·공조의 3낭관과 각사(各司) 등의 관직입니다. 지금부터는 수교(受敎)대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의망(擬望)하게 하소서.¹⁾

라고 상소했다. 조선시대 관원을 임명할 때 3명의 추천자 명단을 왕에게 올렸고, 이를 ‘의망’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서북인, 즉 평안도 지역 백성은 차별을 받았다. 역사학자들은 그 배경을 ‘평안도 지역에는 성리학 보급이 늦었고 따라서 과거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날 이조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성대(聖代)가 중흥하여 만화(萬化)가 다시 새로워져 한 시대의 인재가 모두 발탁되었는데도, 유독 서북인들만은 아직도 잘못된 구례(舊例)를 따라 마치 외방 사람 처럼 무관하게 보고 있으니, 이는 천지와 같이 넓고 큰 성덕(聖德)에도 오히려 유감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조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여러 번 상의한 나머지 재능에 따라 선발하여 청망(淸望)의 추천에다 넣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1백여 년간 폐지됐던 일을 감히 하루 아침에 개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상께서는 재량하여 처리하소서.²⁾

라고 상소했다. ‘청망’은 깨끗하고 명망이 높다는 뜻이다. 인조가 이조의 상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북인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 순조 11년(1811) 홍경래(洪景來, 1771~1812)는 서북인 지역차별에 항의하며 봉기, 한 때 청천강 이북을 점령할 정도로 왕조를 위협했다.

1) 『인조실록』 11년 10월 15일.

2) 『인조실록』 11년 10월 15일.



▲ 청주시 북이면 대울리 최명길 묘소와 묘표. 묘표는 남구만이 썼다.
(출처: 충북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2. 소현세자비에 대한 사약(賜藥)을 반대하다

인종의 장남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는 병자호란 때 아내 강빈(姜嬪)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 그는 북경에서 천주교 선교사 아담 샬(1591~1666)을 만나 천주교와 서양 문명을 접하고 실용주의자가 되었다. 삼전도 치욕을 곱씹고 있던 인조는 세자의 그런 행태가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조 23년(1645) 9년 만에 귀국한 소현세자는 그해 4월 갑자기 숨을 거뒀고 궁내에 독살설이 나돌았다. 이듬해 김자점(金自點, 1588~1651)은 강빈이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고 모함했고 그녀는 별궁에 유치되었다. 조정은 강빈에게 “사약을 내려야 한다”와 “사약만은 안 된다”며 두 정파로 나뉘어졌다. 최명길은 “노여움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후자를 주장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힘써 대간의 요청에 따라 먼저 폐출의 법을 거행하여 왕실의 호적에서 지우고 해도(海島)에 축출하여 잠깐 동안 목숨을 살려 두어 차마 못하는 기색을 보이시고 재삼 생각을 하시어 고복(考覆)의 의미를 부여하다가 사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본 다음에 처단하신다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과 같은 마음이 만물을 쇠락케 하는 가을의 가운데 있게 되어 인심이 다 북중해 거의 유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³⁾

인조 24년(1646) 3월 강빈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그녀의 어머니와 네 형제도 처형되거나 고문으로 죽었다. 세아들도 제주에 유배되어 그 중 두 아들이 곧 사망하는 등 강빈 집안은 멸문을 당했다.



▲ 묘소 입구의 최명길 신도비. 박세당이 지었다.
(출처: 충북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_충북도 문화재연구원)

3) 『인조실록』 24년 2월 20일.

III. 주화론의 이념적인 토대 ‘권도’(權道)

1. 권도의 성립

성리학적인 개념인 ‘권도’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도를 의미한다. 권도는 『논어』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으로 공자가 그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맹자가 정립했다. 『맹자』권7의 『이루(離婁)』 상편의 내용이 유명하다. 하루는 맹자와 제나라 학자 순우곤(淳于髡)이 대화를 나눴다.

순우곤이 물었다. “남녀가 서로 손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그렇습니다.”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건져내야 합니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안 건지는 건 이리나 승냥이 따위나 하는 짓입니다. 남녀가 손수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이고, 형수를 손으로 건져내는 것은 권도이지요.”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왜 안 건져내십니까?”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도(道)로 건져내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건져내는 것이지요. 선생께서 손으로 천하를 건져내십니까?”⁴⁾

중국 명나라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이 성리학의 교조성을 비판하며 완성한 양명학(陽明學)은 관념 대신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했다. 조선에 전해진 양명학은 4색 당파 가운데 최명길, 최석정, 정제두 등 소론이 적극 수용하며 훗날 보재 이상설, 위당 정인보 등이 속한 ‘천 강화학파’를 낳았다.

양명학이 체질화된 최명길은 권도 개념을 더욱 내재화했고, 그것은 병자호란 주화설을 주장하는 사상적 밑바탕이 됐다. 최명길은 병자호란 때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하였지만, 명나라에 대한 의리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조를 설득해 묘향산 승려 독보(獨步, ?~?)를 명나라에 파견, 청나라와의 화친 불가피성을 문서로 설명했다. 중간에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이 독보의 행동을 도왔다.

인조 20년(1642) 청나라는 명나라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금주(錦州)를 점령했고, 이때 항복한 명의 장수를 통해 조선과 명이 내통한 사실을 알았다. 최명길은 “독보를 명에 보낸 일은 전적으로 자신과 임경업이 한 일로 다른 대신들이나 인조도 몰랐다”며 책임을 떠맡았다.

그는 청나라로 압송돼 심양의 옥에 갇혔고, 이때 아우 혜길(惠吉, 1591~1662)에게 몇 번의 편지를 썼다. 그는 이 편지에서 ‘권도’에 대한 개념을 상세히 적었고, 이것이 병자호란 화친의 배경이 됐음을 분명히 밝혔다.

4) 淳于曰, 男女授受不親, 禮與? 孟子曰, 禮也. 曰嫂溺則援之以手乎? 曰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 禮也, 嫂溺援之以手者, 權也. 曰今天下溺矣, 夫子之不援, 何也? 曰天下溺, 援之以道, 嫂溺, 援之以手, 子欲手授天下乎?

2. 아우 혜길에게 준 편지 최명길의 시문을 묶은 문집으로 그의 호를 딴 『지천집』(遲川集)이 목판본 형태로 2종이 현존한다. 이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 『증보역주 지천선생집』(2008, 도서출판 선비) 1~4권이다. 2권에 심양 옥에서 아우 혜길에게 보낸 편지글이 실려 있다.

스스로를 낮추고 권도(權道)를 행하여 위태로운 상황을 변화시켜 평안해지기를 도모한 것은, 성인이 갑자기 사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의 시세(時勢)와 일의 경중을 헤아려서 망할 길을 버리고 살아남을 길을 취하여 도(道)와 더불어 나아가는 것과 또한 같은 것이다. 남한(南漢)의 전쟁에서 외로운 성(城)이 달무리처럼 포위돼서 이미 한 해가 바뀌었고 팔도를 바람처럼 휩쓴 지도 또한 달포가 지났는데, 그때 비록 진평(陳平)과 같은 백등(白登)의 포위를 푸는 것 같이 어려웠거늘, 조정에 가득한 명사들은 모두 군부(君父)를 보존하는 의리에는 어둡고, 한 무리의 깨끗한 의논이란 것은 한갓 척화의 흔쾌함만을 알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하니, 진실로 인간의 떳떳한 도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가 이런 마음이 없겠는가? 5)

인용문의 ‘진평(陳平)과 같은 백등(白登)의 포위를 푸는 것’은 한나라 유방과 흉노족의 전투를 지칭한다. 한고조 유방(劉邦, BC247~BC195)이 흉노에게 포위되었을 때, 진평(陳平, ?~178)의 계책으로 포위망을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백등은 산서성 대동현에 위치하는 산이다. ‘남한(南漢)’은 남한산성을 말한다.

최명길은 편지글에서 권도를 ‘시세와 일의 경중을 헤아려서 망할 길을 버리고 살아남을 길을 취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했다. 이 표현을 병자호란 당시의 형세에 대입을 하면 권도의 개념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시세’는 청나라에 포위된 남한산성, ‘일의 경중’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대명의리를 지킬 것인가, ‘망할 길’은 주전론, 살아남을 길’은 화친론을 의미했다.

최명길은 이른바 외蕃론(外蕃論)으로 권도 개념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는 같은 편지글에서 ‘신종이 임진년에 끼친 은혜는 비록 가히 잊을 수 없지만, 태조께서 창업한 신령스런 토대 또한 차마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큰 의리이다. 또 해동 사람은 이미 해동의 신하이니, 우리 임금에 위하여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길이 옳은가, 아니면 명나라를 위하여 우리임금에게 권하여 우리나라를 망하도록 함이 옳은가.’ 라고 스스로 물었다. 이상에서 보듯 최명길의 주화론은 즉흥적인 것이 아닌, 양명학적 신념이 바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증보역주 지천선생집』2, 「중제(仲弟) 참판 혜길(惠吉)에게 준 편지」, 872쪽.

IV. 인간 최명길

1. ‘파계귀종’을 거부하다

조선시대에는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였다가, 어떤 이유로 친자(親子)가 태어나면 양자를 생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관행으로 여겼다. 이를 ‘파계귀종(罷繼歸宗)’이라고 부른다. 파계귀종이 몰인간적이라는 비난을 받자 양자의 파계를 금지하고 ‘비(非)장자로 강등했다. 조선시대 ‘나이 적은 형’이나 ‘나이 많은 동생’과 같은 사례는 왜곡된 양자 문화로 인해 실재하였다.

최명길은 파계귀종이나 비장자 강등 조치 모두 상식과 인륜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양명학 정신인 지행합일의 실천이었다. 최명길의 첫 번째 부인은 인동 장씨다. 그는 인동 장씨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자 최후량(崔後亮, 1616~1693)을 입양하였다. 최후량은 본디 아우 최혜길의 차남이었다. 최명길은 인동 장씨 사후 재취하여 양천 허씨를 아내로 맞았다. 그 사이에서 최후상(崔後尙, 1631~1680)을 얻었다. 그는 최후량을 파양하지 않고 변함없이 장자로 여기며 관계를 유지하였고 재산도 상속시켰다.

‘인조조에는 또 고 상신 최명길이 후사를 들인 뒤 아들을 낳았으나 호안국의 고사에 따라 후사로 들인 아들을 장자로 삼을 것을 청하여 윤희를 받았었습니다. 천륜이란 일단 정해지면 차서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⁶⁾

호안국은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 후사는 양자를 의미한다. 『속대전』(영조 22년)은 『경국대전』(성종 16년) 이후 260여 년만에 바뀐 조선시대 두 번째 헌법이다. 『속대전』은 최명길의 사례를 아예 헌법으로 명문화, 파계귀종과 비장자 조치를 금지했다.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할아버지의 신도비명을 같은 소론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에게 부탁하면서 ‘의리’라는 이름으로 할아버지 최명길의 병자호란 행적을 변호하고자 했다. 최석정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남구만은 최명길의 신도비명을 쓰긴 했으나 끝내 ‘의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최석정은 남구만의 비명을 버리고 역시 같은 소론인 박세당(朴世堂, 1629~1703)에게 신도비명을 다시 부탁했다.

조선 사대부들은 이미 후사를 세운 뒤에 아들을 낳으면 소생자(所生子)로 제사를주관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풍속으로 굳어졌다. 그런데 공은 생각하기를, ‘부자 관계를 이미 정했고 천륜에 차서가 있으니 바꿀 수 없다’ 하고 조정에 청하여 후량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도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를 법으로 만들게 되었다.⁷⁾

2. 환향녀를 이혼 시키면 안 된다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태종 홍타이지(皇太極)는 인질 수만 명을 압록강 북쪽으로 잡아갔고, 여기에는 아녀자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 청나라가 조선 인질을 과도하게 구인한 것은 훗날 포 등 경제재와 교환하기 위함이었다.

청나라는 포(布) 60여 필을 가져오는 자에 한해 조선으로의 ‘환향’을 허락하였다. 조선후기 아녀자 한 명이 1년 동안 짤 수 있는 포의 양은 3필 정도로, 60여필은 엄청난 물량이었다. 일부 ‘환향녀’들은 요구물량을 지불하고 돌아왔으나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 또는 시댁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받았다. 정절을 잃은 여자에게 제사상을 차리게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환향녀’가 ‘화냥년’이라는 욕말이 된 것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최명길이 제사보다 인륜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단호히 반대했다.

좌의정 최명길이 헌의하기를, “만약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부녀자들을 영원히 이역의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백 집에서 원망을 품는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치 않겠습니까. ⁸⁾

환향녀들은 역사에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나, 한강 또는 세심정에서 목욕을 한 후 이혼을 면했다는 구전이 전한다.

6) 인간 최명길

7) 최명길 신도비명(부분).

8) 『인조실록』16년 3월 11일.

V. 나가며

지금까지 최명길이 병자호란 주화론을 주장하게 된 사상적 배경과 그의 인간된 면을 살펴봤다. 그가 남한산성 안에서 주화론을 주장한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닌, 권도라는 신념이 바탕이 된 것이었다.

최명길은 편지글에서 권도를 ‘시세와 일의 경중을 헤아려서 망할 길을 버리고 살아남을 길을 취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했다. 이 표현을 병자호란 당시의 형세에 대입하면 ‘시세’는 청나라에 포위된 남한산성, ‘일의 경중’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대명의리를 지킬 것인가, ‘망할 길’은 주전론, 살아남을 길’은 화친론을 의미했다.

최명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얼과 서북인 차별을 반대하고, 소현세자비 강빈의 처리에 대한 처리는 사약 대신 폐출을 주장하는 등 불합리를 배격했다. 그는 인간성 면에서도 ‘파계귀종’과 ‘환향녀’의 이혼을 거부하는 등 역시 상식과 합리주의 길을 걸었다. 한 마디로 최명길은 ‘유연하면서 온화한 합리주의’를 지향한 인물이었다.

최명길에게는 대명의리를 저버린 자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다. 조선 후기 노론들은 “백 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삼한(三韓)을 들어 오랑캐로 만든 자”⁹⁾라며 최명길을 혹독하게 비난했다. 1647년(인조 25년) 5월 17일 최명길이 병사하자 그에 대한 진면목이 드러났다. 사관은 『인조실록』에서 그의 죽음을 ‘위급한 경우를 만나면 앞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분명히 처리하여 미칠 사람이 없었으니 역시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이라 하겠다’라고 애도했다. 인조도 그가 죽자 깊이 탄식하고 3일간 조회를 폐하고 5일간 고기반찬을 들지 않았으며, 3년간 그의 녹봉을 그대로 주고 묘사(墓舍)를 지어 주도록 하였다.¹⁰⁾

<참고 문헌>

『논어』

『맹자』

『역주증보 지천선생집』(2008)

『인조실록』

김세정, 2013, 「지천 최명길의 주체성과 창조정신」, 『유학연구』 28.

김준태, 2016, 「권도론 연구」, 『양명학』 44.

박경남, 2014, 「최명길·최석정 서얼허통 상소와 지식인의 역할」, 『고전문학연구』 58.

심경호, 2008, 「지천 최명길의 문학과 사상에 관하여」, 『한국문학연구』 42.

이남옥, 2018, 「지천 최명길의 사상적 배경과 주화론」, 『백산학보』 11.

9) 『인조실록』16년 3월 11일.

10) 『인조실록』25년 7월 19일.

한국 근대미술의 거친 파도 속에서 -김복진과 김주경¹⁾

김기현(미술칼럼니스트)

김복진이 김주경에게 물었다.

사실, 생각해 보니 우리가 미술 공부하러 갔던 일본에서 만나 많은 이야길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네. 그렇게 타국에서 만나 함께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의 독립과 조선의 미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하지 못해 아쉽네. 아마 미술에 대해 자네와 내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서로 만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네. 나는, 주경이 자네가 왜 일본까지 갔는지를 알고 싶었어. 자네가 그리는 그림이 조선미술에 도움이 안 된다는 평들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주경이, 자네가 내 작품과 조선의 미학적 관점에 대해 다른 글과는 다르게 비판적 비평을 했더구먼. 그런데 김복진이라는 나를 잘 알고 썼는지가 의문일세. 물론 말이야,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적 관점에서 다른 작가의 작품을 말하거나, 글을 써서 논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시기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술가 아닌가? 게다가 충북이라는 동향 사람이고, 한 살 나이 차이는 작품으로 보나 미학으로 보나 호형호제하며 동시대 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안 그런가? 내 자랑 같지만 그래도 내가 현대조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 조선 땅에 들여 온 미술가 아닌가. 부정은 안하겠지. 주경이, 자네가 나를 그리 보아 주었으면 좋겠네.

김주경이 다소 흥분된 상태로 답한다.

1) 이 글의 일부는(김복진과 김주경의 대화) 글쓴이가 자료를 바탕으로 상상하여 구성한 팩션(faction)임.
 ■ 김복진 : 조각가. 호는 정관. 1901년 11월 충청북도 청원군(현재 청주시) 팔복리 출생. 한국 근대 조각의 개척자. 1920년에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하여 조각을 전공하고 1925년에 졸업. 1923년에 동경에서 김기진·이서구 등과 신극 운동의 단체 토월회조직. 서양풍 조각가. 1925년의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 참여. 엠엘당에 가담, 1928년의 3차 공산당 검거 때에 체포 6년간의 감옥살이로 작업 중단. 옥중에서 불상 조각. 1933년 말 출옥하여, 1935년에는 생활을 위해 조선중앙일보사에 입사, 학예부장으로 미술 비평을 쓰며 작품 제작에 열중. 1936년 금산사 미륵대불, 1939년에 법주사의 미륵대불 조성.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김주경 : 화가. 1902년 충청북도 진천 문백 출생. 1925년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로 유학. 1928년 도쿄미술학교 도화사범과를 졸업. 프랑스 인상주의 미학을 수용한 작품세계를 주도하였으며 비평 활동도 활발히 함. 1928년 서울에서 양화운동 그룹인 녹향회를 조직, 1929년 5월 24일 천도교 기념관에서 녹향회 창립전을 개최. 1945년 조선미술건설본부의 서양화부 위원장을 역임. 1946년 2월 23일에는 조선미술가동맹을 결성하여 위원장 지냄. 1949년부터 10년간 위원을 역임. 1947년 월북하여 평양미술학교 창설. 초대 교장이 되었고, 1949년 평양미술학교가 평양미술대학으로 승격하면서 1958년까지 초대 학장을 역임.

복진 형. 저는 말입니다. 제가 형의 작품과 평론을 비판했다는 것은 세간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나야말로 형보다 진보적이면 진보적이었지 그보다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형은 조각미술의 작품으로 조선 미술의 현실을 비평한 것이고, 나는 그림으로 나타난 감상주의로 보고 해석한 것뿐입니다. 저에 대한 비평 알고 있어요. 많은 평론가들에게서 수많은 비평을 받아서 이미 지쳐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형의 미술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받은 비평과 차이가 좀 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들 몇 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능 할 수도 있을 겁니다.



▲ 김복진(사진 최열)

화가 김주경이는 조국 산천에 대한 그리움을 연분홍, 연록색 등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유연한 색들에 의하여 더욱 야릇한 향수를 자아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김주경은 당시 유행하던 인상주의 미술의 영향을 받았던 관계로 색채 구현에서 주관주의적 현상을 나타낸 화가라고 합니다. 현실에 대한 관조적 태도와 표면적인 조형적 효과에 치중하는 경향성은 1930년대 후반기 이후의 작품들에서 더욱 우심하게 발로 되었다고도 하였습니다. 결국 김주경은 조선의 전통적인 미술 혼을 버린 채 서구 유럽의 미술 모양새를 추종한 작가인 것입니다. -1930년대 『조선일보』-



▲ 김주경(출처:연합아카이브)

복진이형. 이게 뭘 말하는지 잘 아시죠. 향수주의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둔 ‘우심(寓心)’이라고 하지 됩니까? 지나치게 인상주의 색을 그리는 자가 주경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서구 인상주의에 매료되어 조선의 색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화가가 김주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쁘게만 그리는 그림, 유태주의자로 저를 비판한 것을 보면 저는 이 땅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나 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그림 하나하나를 다 들추어 비평을 하였어요. 조선의 그림이 아니라는데 어쩍니까?

나 김주경의 그림들 중에서 유화인 「봄」이라는 작품과, 「부녀자들의 들놀이」 등 일련의 그림들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서 더욱 멀리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상의 형태와 세부를 무시하면서 사물을 색채로만 고찰하여 광선의 효과를 노린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후기 인상주의 경향에 깊이 빠져든 반민족적 그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김주경의 그림들에서는 대상의 입체감이나 현실감보다 자극적인 색들을 마구 화면에 발라놓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오며 따라서 보여주려는 내용이 조형적 형상을 통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악평입니다. -1930년대 『조선일보』 전시 평 중-

복진 형, 이런 터무니없는 비평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건 주경이네 그림 그리지 말고 외세에나 굴복한 미술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형, 나 김주경이 그렇게 만만한 작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각가 김복진에 대한 비평은 회화라는 그림과 이미 조형화되어 있는 조각에 대한 비평인거죠. 물론 형님이 조선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진보적 저항 예술을 마르크스 예술론 시점에서 예술을 무기화하여 해방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극단적 표현에 나로서는 다른 생각을 던진 겁니다. 사실 저도 복진 형님의 작품에 대해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저에 대한 비평이 인상주의 화가의 아류라고 했더니 복진 형이 존경하던 프랑스 조각가 로댕도 인상주의 아닌가요? 저는 조선의 현대 조각도 전통의 불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의 작품에 대하여 제 생각을 쓴 것이예요. 비평으로 보아야 하고 저와 함께 조선미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살짝 당황한 김복진은 주경의 매서운 눈을 바라보다 피하고 말았다. 김복진은 잠시 속으로 말을 삼켰다.

이 친구,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어쩌면 이렇게 통렬할까? 많이 얻어맞아 단련이 된 건가? 한편으로 그는 참 흐뭇했다.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을 알아보려 했던 게 참 부끄럽구만. 하기가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떤가. 비평은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인데 얇은 지식이 화를 만드는 것 아닌가. 그것참 조선의 미술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슬픈 현실이야.

하지만 김복진은 이내 김주경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반격한다.

그래 그래, 다 좋아. 이제야 속마음을 드러내는구먼. 난 주경이 자네가 내 작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도 주경이, 메타비평²⁾은 작가를 힘들게 하고 경우에 따라 병들게 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나 김복진의 미술에 대한 생각과 작품만 평가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야. 시기적으로 보아도 내 생각이 많이 앞서 있지 않는가, 자 한번 볼 텐가?

난 자네가 일본 유학중 일 때 이미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을 결성했네. 그로 본다면 1930년대 김주경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인가 생각을 해보았나? 미술인으로 말일세. 언젠가부터 나는 미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 식민지 조선의 미술인으로서 생각하네. 카프(KAPF)의 강령이기도 하지만 난 조선의 미술이, 예술이 이랬으면 하네.

예술을 무기로 하여 조선 민족의 계급적 해방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강령일세. 그리고 참다운 예술은 인간이 노동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일세. '예술은 노동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노예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내 오랜 지론이기도 하네. 자네 생각도 다르지 않겠지만 예술은 결코 예술을 위하는 예술이 아니고 민중을 위하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것일세. 예술자상성을 믿어 자위하며 이것으로 민중을 마취하는 예술은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일세. 지금까지 소시민의 비위에 적응한 순정(純正)미술과 같은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에 있어서 정치성을 거세 하려는 과오이기에 순정미술에서 비판미술³⁾로 약진해야 해. 이해가 되는가, 주경이?

2) 비평 자체의 전문 용어. 기본 전제, 논리적 원리, 구조 따위를 주제로 삼는 비평의 비평을 하는 방법

3) '순정미술'은 순수미술로, '비판미술'은 현실주의 미술로 이해된다.

필자가 조각가 김복진의 작품이야기, 그리고 그의 미술에 대한 생각들을 쓰면서 화가인 주경을 데려온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김복진과 김주경 둘은 우리 충북 지역 출신 이고, 모두 본에서 미술을 공부했다는 것, 게다가 이 두 작가의 미술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는 부분에서이다. 김복진과 김주경이 미술과 작품에서 의식의 차이를 보이며 비평을 하던 때, 이 시기는 1937년경으로 김복진은 금산사의 요청으로 미륵불의 모형을 제작하고 있었다. 6년 여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였다.

고향이 청주 청원과 진천 백곡이지만 이미 둘은 미술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예술과 관련한 조직 활동은 김복진이 20년 앞선다. 김복진은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 활동과 조선공산당 조직으로 투옥되었고, 김주경은 남조선미술가 동맹 중앙집행위원장을 1946년에 맡았다.

종로 서촌 옥인동 주점에서 김복진과 김주경의 대화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아마 김복진이 옥동패 친구들과 어울리던 곳이라 주경을 그리 붙렸을 것이다. 그들은 서촌의 당시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1937년 입주한 화숙(畫宿-스튜디오) 김복진 미술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둘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생각의 일치 언저리에서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멋없는 미술가 남자들 둘이서 하는 대화는 그렇게 끝나고 둘은 이후 몇 번을 더 보았다. 그때마다 주경은 복진을 정성을 다해 모셨다.

김복진과 김주경의 태생 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 후 시대를 보는 시각도, 미술을 바라보는 차이도 비평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김주경이 김복진에 비해 치열했다. 김주경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어서 스스로 돈을 벌어 일본 도쿄미술학교 유학시절 사범학교를 선택하였다. 일찍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다. 둘의 대화에서 보면 김주경은 동향 김복진에게 경쟁심과 미술에 대한 욕망이 잘 나타나 있다. 복진은 딸 보보의 죽음으로 피폐해진 몸을 추스르다 절명을 한다. 이를 본 주경은 큰 시름에 빠지게 된다. 그러한 중에도 김주경은 그의 목적인 교육자가 되고 그림 작업과 비평을 병행하여 왔다. 주경은 이후 그림 일체를 교육기관에 기부하고 본인 화집을 만들었다. 지금 그의 작품을 화집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인데 왜 기증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김주경은 김복진의 작품이 조선의 불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경이 생각하는 조선의 조각은 아직도 현실이 아닌 이상을 위한 것이었다. 주경은 복진의 근대 조각 작품에서도 전통미를 찾으려 했다. 1930년대 조선을 생각하는 복진의 작품을 주경은 인상주의라고 비평한 것으로 보인다. 우연일까, 아니면 주경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일까. 주경의 평론은 복진이 감된 후 옥중 작업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법을 공부하고 싶었던 복진이 미술을 선택하고 조선의 전통 조각에 담긴 미술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옥중에서 먹던 밥을 주물러 불상을 만들었다. 이를 관심 있게 보아 온 간수가 불상 제작을 도왔다. 그는 서대문 형무소 수감생활 동안 예술에 대한 생각과

조선 미술에 애정을 쏟았다. 주경이 말한 조선 미술의 이상향이다. 복진이 서양 조각미술을 공부했지만 조각가로서 조선 전통미술에 쏟은 각별한 애정이 불상 조각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복진을 알아본 사람은 박한영³⁾이다. 불교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던 박한영은 금산사 복원 불사에 김복진을 참여시키기 위해 김수곤을 설득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금산사의 불상 복원 의사 결정자는 주지 성열스님이고 대시주는 김수곤⁴⁾이었기 때문이다.

금산사 미륵전 안의 미륵대불은 무쇠솔으로대좌를 만들고 그 위에 미륵장육상을 766년에 세웠다. 1935년 소실된 금산사 미륵대불(그림1)의 복원을 위해 금산사에서는 김보응, 이성석, 김일섭, 김복진 등의 작가에게 기초 조각을 의뢰하였다. 김복진을 빼고는 모두 전통 불상 작가이거나 화승이었다. 이 가운데 김복진과 김일섭(일섭스님) 작품이 경쟁 대상이 되었고, 최종 김복진의 작업이 선정되었다. 금산사에서는 불상 제작 작가선정을 위해 높이 1m의 모형불상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제주 정광원에 일섭 스님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김복진의 불상은 공주 신원사 소림원에 있다. 두 작품의 의미는 크다. 금산사 미륵대불 제작을 위한 작품의 양상과 불사에 접근하는 작가의 방식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 그림1) 1637년 조성 추정 금산사 미륵불 소실 전. 1911년 촬영(출처: 『법보신문』)

김복진 불상 선정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주지 성열 스님은 그 자신도 화승으로서 문성과 일섭 스님을 주변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복진과 조선미술원⁵⁾을 함께 개설한 김은호 화백을 심사에 초대할 것은 김수곤으로 그는 전통적인 불상의 모습에서 개혁적 불상 모습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미 김복진을 맘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는 후문이 있다. 즉 결정적 심사에 박한영, 김은호 등이 참여했고, 서양 조각을 전공한 김복진을 선택하기

3)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완주 출신의 승려이자 불교 지도자. 쇠퇴한 불교를 혁신하려는 뜻을 품고 교단의 유신에 힘을 기울임. 해인사 주지 이회광이 일본 조동종과 우리나라 불교와의 연합을 꾀하였을 때 한용운, 오성월, 진응, 금봉 등과 연합 조약을 무효화시킴. 1913년에는 해동불교 창간,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고 불교인의 자각을 촉구함.

4) 1873년 전북 태인 가산 인주의 갑부 아들로 출생. 유생으로 불문에 귀의 백양사 청류암에서 좌선. 속리산 법주사 미륵상불, 금강산 유점사, 금산사 등에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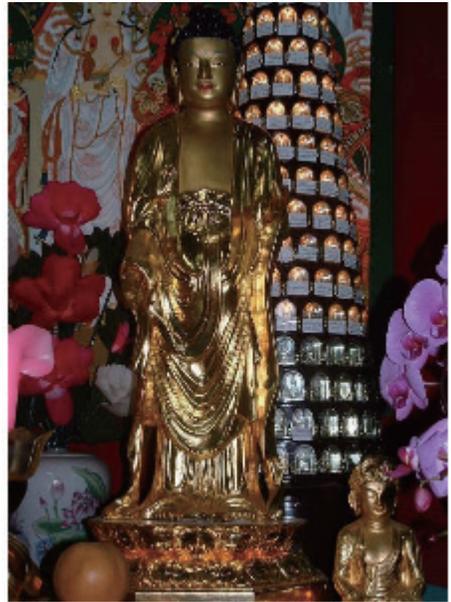
5) 1936년 김은호 · 허백련 · 박광진 · 김복진이 발기, 10월 발족. 수묵채색화, 유채화, 조소를 가르치는 전문 미술교육기관.

위한 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주지스님이지만 대시주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만만치 않은 저항을 받게 되었다. 아무튼 주최자들의 의지대로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나 김복진의 불상에 대한 비평은 화승들과 미술계에 오래 계속되었다. 전통 기법의 불상으로 의미를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 기법의 불상을 수용할 것인가의 결정이다. 현대적 기법을 선택했지만 이에 따른 대립은 김복진의 불상 작업이 과연 근대 조각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가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다.

금산사는 미륵대불을 복원하기 위한 기획을 하면서 불상의 방향 설정에 준비가 덜 된 듯해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때까지는 공개적인 경쟁입찰이나 추천 공모의 방식이 아닌 작가 선택 방식이 주로 쓰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경쟁 입찰공모가 일반적이지 않던 시절이고 보면 이러한 도전방식은 매우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 일반 승이든 화승이든 많은 불자들 사이에서는 승려의 작품 대결이 아닌 조각가의 작품이 선정 대상에 오를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이것은 어쩌면 향후 화승만이 불상 제작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환한 계기이기도 했다. 일부 승려들은 이제 불상조차 일반인에게 맡기면 화승들의 불교계 입지가 불안하다는 위기의식까지 드러냈다. 결정은 났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기 복역하고 출소한 김복진에게는 작가로서 재생의 기회가 되었다.



▲ 그림2) 김복진의 모형불상
(공주 신원사 소림원, 출처: 『법보신문』)



▲ 그림3) 일섭 스님의 모형불상
(제주 정광사, 출처: 『법보신문』)

김복진이 제출한 1m 모형 조각 불상과 이를 기초로 제작한 10m의 금산사 미륵대불은 전통 불교 양식을 비껴섰다고 한다. 먼저 모형 조각(그림2)을 보자. 반복되는 곡선과 나선형 모양의 옷 주름이 부처의 살결에 맞닿아 있어 몸체와 얇게 중첩되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주름이 우주의 형식처럼 대칭적 흐름 형태를 하고 있어 오히려 전통적

이상을 표현한 것 같다. 드러난 가슴 선에서 부터 배 아래로 흘러 접히듯 내려온 흐름은 반복된 패턴으로 허벅지로 내려오다 사라진다. 김복진이 부처의 육체를 가능하면 드러나게 표현하려 한 흔적 들이다. 다시 다리에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좌우를 마주 대면 하나가 될 것 같은 대칭은 부처세상과 인간 세상이 다르지 않은 불교의 이상향으로 보인다.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김복진의 모형 불상에서 보이는 것은, 동시대 김주경을 비평했던 인상주의의 로댕 양식을 차용한 것이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결국 새롭게 공부한 서양 조각의 인상을 전통 불교 양식과 겹쳐 두 개의 양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직 김복진 만의 특성이 조각 기법을 불상을 통해 만들어 냈다는 평이다. 그것도 그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조선 프로레타리아 미술세계를 혁명사상인 미륵사상으로 불교 미래구원을 상징하려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함께 모형 불상으로 대결을 했던 일섭 스님 작품(그림3)과 비교를 해보아도 표현의 방식에서 확연히 다르다. 오른손 손목에 걸쳐져 부처 가슴을 지나가는 가사 자락은 옷자락의 표현이 일섭 스님의 표현 형식이다. 일섭은 불상 중앙을 기준으로 두고 불자의 시각으로 왼쪽으로 흘러가 질서를 허무는 듯한 자유분방한 불상의 모습이다. 이에 김복진의 불상에서 현대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섭과 다르다. 김복진의 작품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미술 원형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는 통일신라가 이상적 사실주의 미술을 지향했다는 것을 불상에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석굴암 본존불에서 가사가 부처의 몸을 가볍게 감싸고 있어 자태가 자연스럽다. 옷 주름이 부처의 몸에서 흐르는 자비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도인 것을 읽을 수 있는 표현이다.



▲ 그림4) 현재의 금산사 미륵전 미륵 삼존대불(본존불 높이 11.82m). 김복진 작. (출처: 『법보신문』)

옥중 6년여의 기간이 김복진에게는 커다란 변화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충북, 동향의 화가 김주경에게 받은 조선 조각미술의 비평을 수용하며 대화한 시간 역시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부분이다. 수감 전 조선 현대 조각의 흐름을 거대하게 바꿔놓은 그로서는, 마르크스적 계급해방의 책무처럼 진보 조각의 계승이며 고민의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복진의 7년여 불상 작업은 한국불교 미술의 전환이 되기도 했다. 그가 세상에 더 오래 남았다면 청주의 용화사 불사와 더불어 충북미술은 근대 한국 조각미술의 중심으로 성장해 있었을 것이다.

김주경은 30대 청년기 오지호⁶⁾와의 2인전 이후 프랑스 인상주의 미학에 대해 갈등한다. 그 갈등은 향토적 색이라는 비평에 지쳐 있을 때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해방 이후까지 계속되었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지향하는 주경을 북으로 가게 한 이유일 수도 있다. 조선 프롤레타리아 미술을 고민하던 시기에 김복진의 타계는 주경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 미술의 진보적 활동을 위해서 개인과 사회(조직)의 의무가 크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주경은 자신의 책무로 인해 어깨가 무거웠다. 주경은 1946년 서울의 어느 술집에서 오지호와 해방 조선의 미술에 대한 심경과 김복진의 빈자리를 끝없이 이야기했다. 오지호는 그를 위로하고 화우로서 동행을 기대했다. 광주 지역으로 내려가 함께 미술교육과 창작 활동을 청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경은 이듬해 김복진을 가슴에 안고 북으로 갔다.©



▲ 그림) 법주사 미륵 대불1, 2 / 청주 용화사 석불(출처: 연합아카이브)

<참고문헌>

김기현, 「김복진의 미술세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8.

신수경, 「김주경의 해방 이전 민족미술론 연구」, 『인물미술사학』9, 2013. 12.

임혜봉, 『석전 박한영』, 민족사, 2020.

최 열, 『김복진; 힘의 미학』, 재원, 1995.

——,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디지털김제문화대전(<http://gimje.grandculture.net/gimje>)

6) 1905년 전남 화순 생.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최초 인상주의 화가. 민족주의자. 김주경의 추천(후임)으로 9년간 송도고등보통학교 미술교사. 조선대학교 미술과 교수. 1982년 12월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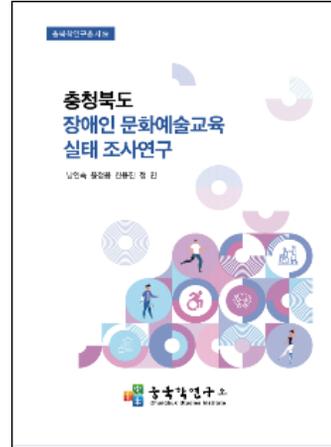
충북학연구소 소식

2022년
발간 도서



『충북학』 제24집

충북의 자연, 역사, 인물, 예술, 문화, 교육, 사회에 관한 11편의 연구 논문 모음집.



충북학연구총서9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연구』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시설과 기관, 교육프로그램과 만족도에 관한 최초의 조사연구 보고서.



충북학자료총서17
『주해 삼죽사류』

제천에 살았던 조선 후기 문인 삼죽 조항의 생애 정리, 시조집 『삼죽사류』 구성 및 편찬의 식 정리, 시 주해



충북학자료총서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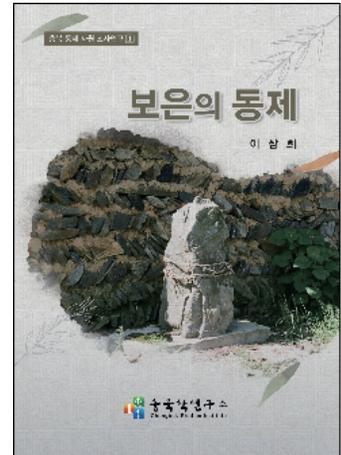
『1928년 발간 충북의 문화와 사람』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쓴 『충북의 문화와 사람』을 편역, 일제의 침탈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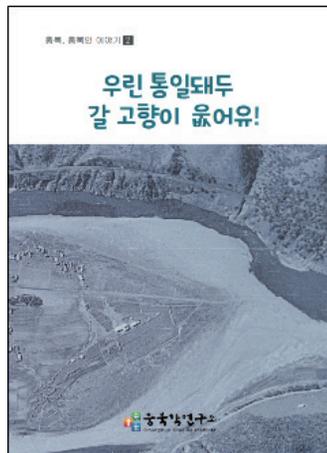
충북학자료총서19
『동요작곡가 정순철 노래모음 60곡』

육천 출신 작곡가 정순철의 기존 자료와 새로 발굴한 자료 정리, 악보 채보. 정순철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는 자료.



충북 동제자원 조사연구1
『보은의 동제』

연속사업으로 기획한 '충북 동제자원 조사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 보은군 동제자원 전수조사로 보은 동제 집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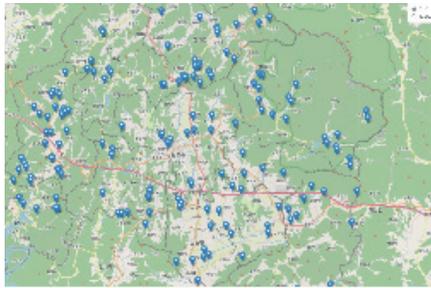
충북, 충북인 이야기2
『우린 통일대두 갈 고향이 읊어유!』

충주댐 건설로 고향이 수몰되어 떠나야 했던 수몰민에게 직접 들은 소중한 이웃의 역사 기록.

**2022년 제작
디지털 콘텐츠**

○ <보은의 동제> 웹지도 제작

: <충북학아카이브(<http://archive.vrculture.com/>)>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은 동제 웹지도 이미지



▲ 웹지도 서비스 화면

○ 충북학이시습(忠北學而時習) 아카데미 : “충북의 동시 동요” 정지용, 정순철, 오장환, 권태응, 오장환 편 영상 제작. 유튜브 <충북학연구소(<https://www.youtube.com/@user-bk7uy4rv4w>)>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지용 편



▲ 정순철 편



▲ 오장환 편



▲ 권태응 편



▲ 권오순 편

2023년 충북학 제25집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발간 『충북학』 제25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고를 투고해 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 정보	모집분야 충북관련 연구논문 및 비논문 원고 모집	모집 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분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 일정	원고마감: 2023년 10월 30일 게재심사: 2023년 11월 15일 결과통보: 2023년 11월 16일 발간시기: 2023년 12월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cbc9236@cri.re.kr 문 의 043) 220-1161~2
--------------	--------------------------------------------------------------------------------------	--------------	------------------------------------------------------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하십시오.
-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